

# 학술회

„친애하는 (아시아) 어르신들,  
오늘 어떻게 지내시나요?“



**Gesellschaft**

für Psychosoziale Gesundheitsförderung  
bei Migrant\*innen

## 학술회 프로그램북

“친애하는 (아시아) 어르신들, 오늘 어떻게 지내시나요?”

2017년 1월 베를린

## 발행처

(사)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 GePGeMi e.V.

Gesellschaft für Psychosoziale

Gesundheitsförderung bei Migrant/innen

Petersburger Str. 92, 10247 Berlin

+ 49 (0)30 8853 4035

info@gemi-berlin.de

## 기획 및 편집

아슬콜트 히즐러 (Askold Hitzler)

박지은 (Jieun Park)

## 번역

박지은 (Jieun Park)

## 학술회 행사 및 프로그램 인쇄 후원 기관 및 단체:

Gefördert im Rahmen des  
Kooperationsprojektes



Dieses Projekt wird aus Mitteln des Asyl-,  
Migrations- und Integrationsfonds kofinanziert.



Bezirksamt  
Charlottenburg-Wilmersdorf



# 머리말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독일의 이주 노령인구의 비율은 이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앞으로도 점점 더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노동이 주자로서, 난민으로서, 또는 여러 개인적인 이유들로 몇십년 전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고국을 떠나 독일로 이주해 이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된 아시아 이주민들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들이 예외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 아시아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즐겨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아시아 이주민들은 이주의 삶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며 어떠한 체험들을 하며 살아갈까? 독일에서 노후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수십년간 독일에서 살았지만 고국의 전통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독일에서 성장하고 사회에서 잘 통합하며 살아가는 듯한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 할까?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노후기에서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유념되어야 하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은 저희 (사)이민사회정신건강 증진협회 (독일어명 GePGeMi e.V.)의 활동들에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주도적으로 예비연구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이후 이렇게 “친해하는 아시아 어르신들, 오늘 어떻게 지내시나요?”라는 제목의 학술회에서 작게나마 중간결과를 발표할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지난 학술회의 첫번째 부분에서는 김민성 박사의 설문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이어, 재독 아시아 어르신들과 관련한 활동 두 분야, 즉, 노조미 슈펜너만 (Nozomi Spennemann)이 발표한 문화 고려 돌봄 (kultursensible Pflege)을 위한 독일-일본 협회 DeJaK e.V.의 활동들과 안드레아 뮐러 (Andrea Müller)가 발표한 베를린시의 요양 및 돌봄 상담기관 (PflegeStützpunkt)의 베트남 그룹과 협력 경험들이 소개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한인 파독간호사들이 그 당시 낯선 땅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오늘날 노후의 삶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독일에서 맞이하게 될수도 있는 간병과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표현한 파독간호사 빨간구두 극단의 “그리움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가 학술회 두번째 부분인 토론회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이주의 삶에서 노후기에 맞이하는 건강과 참여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노인복지 분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당사자인 재독 아시아 이주 어르신들이 함께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노후기에 접어든 아시아 이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어떻게 증진 및 장려될수 있을까?
- 이주민 단체 (Community)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제도적인 도움들이 어떻게 전문적여질수 있을까?
- 아시아 어르신들에게 “문화를 고려한 돌봄”이란 무엇일까?

이번 학술회가 (아시아) 이주 노령인구와 관련한 연구와 실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이신 재독 아시아 어르신들, 그리고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던 만큼, 실제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에 저희들은 무척이나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끼리만 이주민 그룹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후기의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자문을 구할수 있는, 그래서 원래 전문가이신 재독 아시아 어르신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또한 뜻깊었던 일은 저희와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학술회 행사를 이끄는 데 적극 함께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행사를 이끌고 조직하는데 있어 베트남 그룹인 “당케 도이칠란트 협회” (Danke Deutschland e.V.)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베트남 협회” (die Vereinigung der Vietnamesen in Berlin & Brandenburg e.V.), 일본 그룹인 “문화고려 돌봄을 위한 독일-일본 협회” (DeJak Tomonokai e.V.)와 “일본 여성모임” (Japanische Fraueninitiative)들의 봉사가 없었다면, 이번 학술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술회 프로그램이 더욱더 풍성해질수 있었던데에 기여한 재독 한인 파독간호사 빨간구두 극단과의 뜻깊은 협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출신국의 아시아 이주민들이 함께 학술회에 참여하고 토론할수 있었던 사실, 그리고 또한 행사진행이 여러 출신국의 아시아 이주민들의 봉사로 이루어질수 있었던 점들은 저희에게 뿐만 아니라, 학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 동시에, 재독 아시아 이주그룹 모두가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릴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술회를 개최하기까지, 그리고 이번 학술회 프로그램북을 인쇄할수 있도록 지원해준 House of Resources와 IKMO, 그리고 엘리스 살로몬 대학 (Alice Salomon Hochschule)과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학술회 행사의 대표 후원자로 자리해 주시고 앞으로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며, 자치구 의회실 (BVV-Saal)에 학술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베를린 샬로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Charlottenburg-Wilmersdorf) 구역 사회통합 담당대표 레온 프리델 (Leon Friedel) 님께 또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1월, 베를린

박지은 (Ji-Eun Park, 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스콜트 히즐러 (Askold Hitzler, 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간부회원)

김민성 (Dr. Min-Sung Kim, 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대표)

# 후원자 인사말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샬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구역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치구의 정치적 심장부를 상징하는 공간에 와계십니다. 이곳에서 자치구 의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정치적 방향들이 정해지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샬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구역은 베를린 서쪽 지역에서 특히나 다양성을 지닌 곳으로, 총 33만 8천명인 자치구 주민의 약 40%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4%는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과 가족배경, 그리고 다양한 성정체성과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노령화된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의 평균 연령은 45.5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베를린 전지역 평균 연령보다 세살이 더 많은 나이입니다. 베를린에서 슈테글리츠-펠린도르프 지역구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사회통합행정부 담당직을 맡아온 이래, 저는 “노령화” 주제가 이주민 그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고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부 피하기 어려웠던 운명 같은 이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십년간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더 잊혀가면서, 이제 독일의 노인돌봄 영역에서 그들의 수요와 욕구가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혹시 이곳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나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기본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살아오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케 도이칠란트 협회”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베트남 협회”처럼 아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될것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는 “오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령화”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다룰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주노령 인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와중에 솔선수범하는 이민 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의 자발적 연구활동은 저를 더욱 기쁘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 박사님을 무대에 부르기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노령인구는 우리 사회에서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자원이어야 합니다.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지금 바로 이 어르신들은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고향과 같은 친숙함을 느낄수 있게 되는지, 이주민들의 사회통합과 참여에 있어 그 당시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 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앞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시시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 많은 성과와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인사말을 마칩니다.

빌메르스도르프-샬로텐부르크 자치구 사회통합 담당대표, 레온 프리델 (Leon Friedel)



## 베를린 (동)아시아 노령인구 건강관련 삶의 질과 노후에 대한 인식연구 중간결과

김민성 박사 (Dr. Min-Sung Kim)

오늘 이 자리에서 재독 아시아 노령인구 건강관련 삶의 질과 노후 인식에 대한 준비연구의 중간결과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에 우선 무엇보다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준비연구는 2016년에 시작되어서, 만 55세 이상의 재독 베트남, 일본, 그리고 한국 출신 이주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설문 답변자들은 베를린 또는 브란덴부르크 거주자로, 그외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설문결과는 오늘 발표에서 제외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처음 독일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실시되었으며, 총 11장의 설문지는 7개의 카테고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삶의 질, 거주 형태 및 상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적 및 사회적 봉사참여, 재정적 상황, 문화와 관련한 노후에 대한 인식) 안에 총 61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들으신바와 같이 설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결과를 소개해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의 많은 양해 우선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결과는 조사 영역에서 특히, 설문 답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그리고 노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 중요한 설문 답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를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독 아시아 어르신들은 총 264명 이었으며, 이 중 약 55%는 한국 출신 (147명), 30%는 베트남 출신 (79명), 그리고 15%는 일본 출신 (39명)입니다. 이들 전체가 독일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39.6년 (sd=10.3년)이며, 베트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거주기간 (29.5년, sd=8.1년)을 보인 반면, 한국인들의 거주기간은 평균 45.7년 (sd=5.3년)으로 가장 긴 거주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인 거주기간: 36.4년, sd=11.0년). 그 밖에, 여성이 66%의 비율로 남성 (26%)보다 확연

하게 더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8%는 성별문항에 답하지 않음).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 어르신들의 49,6%는 만 65-69세 그리고 70-74세 (m/md=만 65-69세) 사이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중 베트남 출신 답변자들은 (m/md= 만 60-64세) 다른 두 국가 출신의 답변자들과 비교해 더 젊은 모습입니다 (일본인: m/md=만 70-74세, 한국인: m=만 65-69세, md=만 70-74세).

설문 답변자들의 60% 이상이 독일의 아비투어 (Abitur)에 상응하는 학교 졸업장이나 학사과정을 졸업한 모습으로, 이는 독일에서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이주민구의 평균 학력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학력과 관련해 설문 답변자들의 출신국가별로 관찰한 결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답변자의 60% 이상이 동서독 시절 외국인 노동자로 독일로 이주한 가운데, 한국인들은 93%의 비율로 외국인 노동자로 이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사람들이 36%로 많았습니다. 일본인 설문 답변자들의 가장 많은 독일 이주의 이유는 34.2%를 나타낸 유학이었습니다.

재독 아시아 노령인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전, 그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잠시 측정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영역과 관련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말합니다 (Bullinger, 2000). 이러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미국에서 발명되고 수많은 국제적 연구 (Kim, Lee, Yoon & Kwon, 2015; König et al., 2010; Nguyen & Kruse, 2012; Nübling, Andersen & Mühlbacher, 2006; Parikh, Fahs, Shelley & Yerneni, 2009; Ware, Kosinski & Keller, 1995; Yamazaki, Fukuhara & Green, 2005) 에서 사용되어져 신

뢰성이 높은 도구로 인정받는 SF-12 설문지 인데요, 결국 분석을 위해서 두개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신체적 건강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건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치가 나타낼수 있는 범위는 0 부터 100 까지로, 수치가 높을수록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뜻합니다. (Ware et al.,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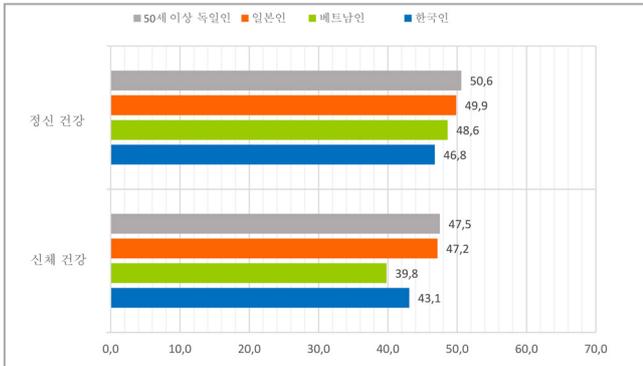


도표 1. 만 55세 이상 설문참여 아시아 이주인과 만 50세 이상 독일 국민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이번 설문에 참가한 재독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의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결과는 47.8점,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점수는 42.9점을 나타냈습니다.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재독 일본 이주 노령인구 그룹이 두가지 관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다른 두 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베트남 그룹의 수치가 한국 ( $t[166]=2.02, p<.05$ )과 일본 ( $t[82]=-3.16, p<.01$ ), 두 그룹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설문 답변 베트남 그룹의 평균 연령대가 다른 두 그룹과 비교해 현저하게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특히나 눈에 띄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결과를 독일 국민들에게 실시했던 다른 연구결과 (Ellert, Lampert & Ravens-Sieberer, 2005)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의 결과가 두가지 관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든 분야에서 독일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씩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를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

다. 다음은 재독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의 노후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 발췌한 일부 결과를 건강관련 삶의 질과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번 설문 참여자들은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수 있는 여러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진다” 라는 문장에 동

의하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까지 답변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의 도표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색 부분의 답변이 문장 내용에 동의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붉은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태의 총 14개의 문항중 오늘은 네가지 부분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한국인 설문 참여자들이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 자신의 고향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인 설문 참여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고향을 덜 그리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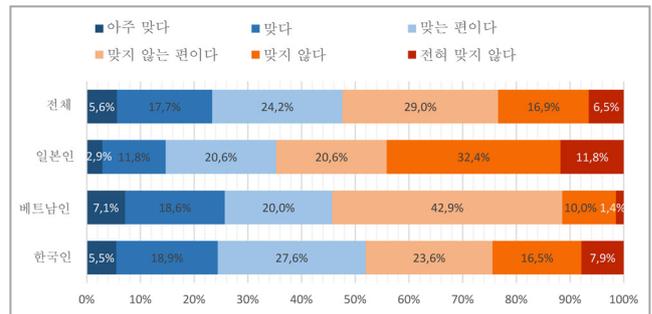


도표 2. 나는 나의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진다.

이 결과를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하여 관찰한 결과와 비교하면 (도표 1),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과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고향을 더 그리워 하는 성향을 보이는 설문 답변자들의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 수치가 자신의 고향을 비교적 덜 그리워하는 설문 답변자와 비교해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r=.17, p<.05$ ).

다음은 유교주의 문화에 의해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넓게 퍼져있는 인식과 관련한 것으로, “나는 아들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도표 3) 라는 문항입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재독 아시아 이주 노령인구의 70%가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출신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재독 베트남 출신 이주노령 인구가 다른 그룹인 한국과 일본 그룹들과 비교해 전통적인 인식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수 있는데, 이는 설문에 참여한 베트남 그룹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그룹의 인식은 다음 소개해드릴 다른 결과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베트남 그룹은 돌봄 등이 필요하게 되어 혼자서 사는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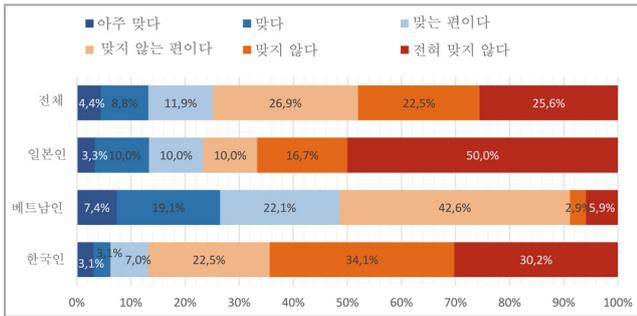


도표 3. 나는 아들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다른 두 그룹들과 비교해 더 많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도표 10, 18쪽). 그 밖에, 다른 그룹보다 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향을 나타낸 한국 그룹 (도표 2)이 자녀와 관련한 전통적인 가치를 보여준 문항에 가장 적게 동의하고 있는 결과 또한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아들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옳다”라는 문항의 동의 정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이 문항에 동의하는 성향을 보이는 설문 답변자의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통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r=.16, p<.05$ ).

다음은 전체 설문 참여자들의 50% 이상이 동의한 문항인 “노인의 삶은 외롭다”입니다 (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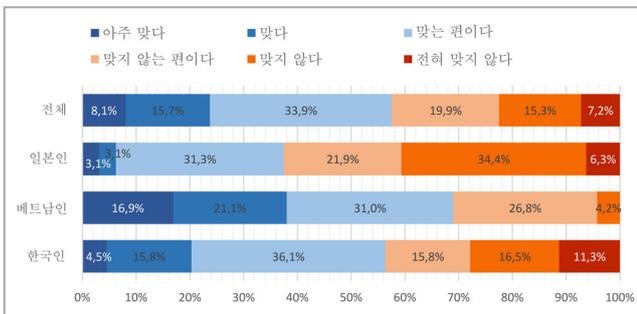


도표 4. 노인의 삶은 외롭다.

베트남 그룹의 거의 70%, 그리고 56%의 한국인 그룹이 이 문항에 동의한 반면, 일본 그룹은 37%로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동의한 모습입니다. 이 결과는 만 65세 이상의 독일인들에게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를 물었던 2013년에 발표된 게네랄리 재단의 노인연구 (Generali Altersstudie) 결과와 비교해볼수 있는데요, 당시 70%의 독일 설문 답변자들이 “드물게 또는 전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바 있습니다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3).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노인의 삶은 외롭

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성향을 보인 사람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이 두가지 관점 모두와 관련된 삶의 질이 부정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 사람들과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psy. r=.16, p<.05; phy. r=.19, p<.05$ ).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문항은 “독일에서 노령 이주민들은 권리를 찾는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있다”입니다 (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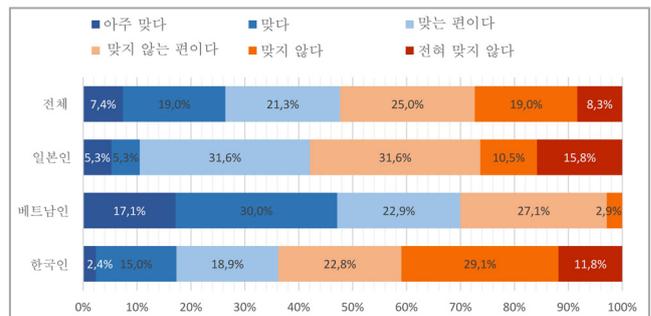


도표 5. 독일에서 노령 이주민들은 권리를 찾는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출신국에 따른 그룹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베트남 그룹의 70%가 이 문항에 동의하고 있지만, 64%의 한국 그룹과 58%의 일본 그룹은 반대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결과를 건강관련 삶의 질과 연관해 살펴보면, 노령 이주민들이 독일에서 권리를 찾는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 두가지 관점과 관련한 삶의 질이 모두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psy. r=.22, p<.01; phy. r=.21, p<.01$ ).

여기까지 보여드린 결과들은 연구의 첫 중간결과로써, 이것을 통해 어떠한 결론들을 곧바로 도출해 내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입니다. 저희는 실시했던 설문결과를 앞으로 차근차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GePGeMi e.V.) 홈페이지 ([www.gemi-berlin.de](http://www.gemi-berlin.de))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협력기관들에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지 번역이나 설문지 배부에 그들의 큰 참여와 협력이 없었다면, 공동의 설문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Bullinger, M. (2000). Erfassung der gesundheitsbezogenen Lebensqualität mit dem SF-36-Health Survey. *Bundesgesundheitsbl - Gesundheitsforsch - Gesundheitsschutz*, 43, 190–197.

Ellert, U., Lampert, T. & Ravens-Sieberer, U. (2005). Messung der gesundheitsbezogenen Lebensqualität mit dem SF-8. Eine Normstichprobe für Deutschland. *Bundesgesundheitsblatt - Gesundheitsforschung - Gesundheitsschutz*, 48 (12), 1330–1337.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3). *Generali-Altersstudie. Wie ältere Menschen in Deutschland denken und leben*. Berlin: Springer; Fischer-Taschenbuch-Verl.

Kim, K.-H., Lee, S.-K., Yoon, H.-J. & Kwon, G.-H. (2015).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old-old elderly of more than 70-year-old on thei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 (6), 3889–3901.

König, H.-H., Heider, D., Lehnert, T., Riedel-Heller, S. G., Angermeyer, M. C., Matschinger, H. et al. (2010). Health status of the advanced elderly in six European countries. Results from a representative survey using EQ-5D and SF-12.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8, 143.

Nguyen, M. H. & Kruse, A. (2012). The effects of Tai Chi training on physical fitness, perceived health, and blood pressure in elderly Vietnamese. *Open access journal of sports medicine*, 3, 7–16.

Nübling, M., Andersen, H. H. & Mühlbacher, A. (2006). *Entwicklung eines Verfahrens zur Berechnung der körperlichen und psychischen Summenskalen auf Basis der SOEP-Version des SF 12 (Algorithmus)*. Date Documentation, No. 16.

Parikh, N. S., Fahs, M. C., Shelley, D. & Yerneni, R. (2009). Health behaviors of older Chinese adults living in New York City.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4 (1), 6–15.

Ware, J. E., Kosinski, M. & Keller, S. D. (1995). *SF-12: How to Score the SF-12 Physical and Mental Health Summary Scales* (2. Aufl.). Bosten: New England Medical Center.

Yamazaki, S., Fukuhara, S. & Green, J. (2005). Usefulness of five-item and three-item Mental Health Inventories to screen for depressive symptom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Jap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3, 48.



## 활동적 노후: 독일-일본 협회 DeJaK-Tomonokai e.V.

노조미 슈펜너만 (Nozomi Spennemann)

이 자리에서 저는 “문화고려 돌봄”을 위해 활동하는 독일-일본 협회 (DeJaK-Tomonokai e.V., 이하 DeJaK 표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이주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고, 요즘에는 이주민 단체들의 조직체 강화를 위해서 상담하고 교육하며 서로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DeJaK 협회가 아주 특별한 단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eJaK 협회는 우리 한국 친구인 해로 협회 (HeRo e.V.)와 함께 특별히 이주 노령인구의 관심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드문 이주민 단체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저희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소개할수 있게 된 것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 설립배경

우선,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독일 일본 대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적자들은 약 4만 4천명이고, 베를린 통계청에 따른 베를린 거주 일본 출신 이주민의 수는 약 4천 600명 입니다. 여기서 일본 출신이란, 일본 국적자와 독일로 귀화한 일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년간 젊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이주로 인해, 현재 재독 일본인들은 비교적 젊은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 65세 이상 재독 일본출신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 베를린 거주 일본인들의 7% (315명), 그리고 만 75세 이상은 2% (92명)에 불과합니다. 베를린의 샬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와 슈테글리츠-펠렌도르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 그룹에게 인기가 아주 높은 자치구역이며, 최근들어 미테와 판코우 지역에서 또한 일본 공동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말한 두 지역에서 만 75세 이상의 베를린 거주 일본출신 노령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으며, 샬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지

역은 일본 기관들의 주요 요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총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울수 있는 두개의 보충학교가 있고, 일본 여성 단체 (Japanische Fraueninitiative)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의 베를린 그룹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출신 베를린 주민의 수는 다른 이주민 그룹들과 비교해서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눈에 잘 띄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잘 통합하며 살고있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이주민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독일어 능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노령기의 삶을 미리 준비하거나, 스스로 노후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변화에는 모국어가 가능한 동행을 필요로 합니다. 독일어 능력은 제 2의 외국어로 습득된 언어이기에 치매로 인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일본어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찰에 의하면, 노령기에 접어들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일본과 독일을 오가는 할머니, 또는 일본에 거주하던 부모중 하나가 혼자가 되어 독일로 이주한 아들이나 딸들의 가족으로 뒤늦게 이주하는 경우가 더 잦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서, 이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른 이주민 그룹들과 비슷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일 복지법이 제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들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 또한 인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협회는 노령기에 접어든 우리를 스스로 돕기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 협회 소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협회 DeJaK은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총 16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연합들이 조직되어있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 지역, 특히, 뒤셀도르프와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뮌헨, 바덴-바덴, 그리고 베를린에서 단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순수하게 명예직 봉사를 근본으로 하는 조직체 이지만, 독일 전역에 퍼져있는 “문화고려 노인복지를 위한 포럼”(Forum für kultursensible Altenhilfe) 네트워크의 운영그룹에서 첫 이주민단체 회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아주 활동적입니다. 우리의 주요 활동은 정보와 상담, 그리고 봉사참여, 이렇게 두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해 세가지 활동의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활동

저희들의 핵심 프로젝트는 “닌치쇼(치매)-지지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 캠페인 „Caravan Mate“로 인해 지난 2005년 부터 있어왔던 한 교육프로그램을 근반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단체에서 2013년 일본어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약 50명의 훈련사를 교육시켰고, 이후 꾸준히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치매를 알고있지 않은) 사전지식이 없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치매와 관련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90분간의 훈련으로, 일본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해 만들어진 훈련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닌치쇼 (치매)-지지자-훈련” 프로젝트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방 프로그램 “치매 환자를 위한 지역 동맹”(Lokale Allianzen für Menschen mit Demenz)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 기간동안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총 300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2005년부터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900만명 입니다.

그 밖에, 저희들은 각 현장에서 전문 강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에서는 샬렌덴부르크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일본 대사관에서 일년에 총 네번의 강연이 개최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만나는 일은 일본 사람들이 독일의 시설에 익숙해질수 있고, 또한 반대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질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들은 예를들어, 모든 시설 거주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일수 있는 음악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강연들은 일반적

로 일본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2017년 12월에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치들을 주제로 뒤셀도르프의 한 일본 의사의 강연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독일 법무부의 사전의료지시서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언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공호흡이나 인공적 영양공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이해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일 외에, 현재 저희들은 여기 저기서 명예직 봉사활동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NRW 주에서 독일 사회복지법 § 45a SGB XI 조항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았고, 11월에는 KDA재단의 지원으로 약 30명이 일본어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을 수료할수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조 및 봉사활동 조직을 지원하는 베를린 시의 “Kontaktstellen PflegeEngagement”와 협력하고 있으며, 저희 회원중 세명을 포함해 총 네명의 일본인이 이곳에 등록하고 봉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조직적 체계를 보장할수 없는 저희들의 활동들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독 일본인들의 활동적 노후에 있어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1970년대 이래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화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또한 노후나 노인요양 또는 치매에 관련해 아주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 관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모든것을 절대로 혼자서는 해낼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주위에는 저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과 전문 서비스들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자리한 단체들과 이주민 그룹들이 문을 열고 파트너를 찾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원이 적은 작은 봉사활동 조직으로써, 우리들은 혼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자리한 노인요양 및 노인복지 기관들과 전문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이주민 단체들과 단지 먹거리와 춤이 자리하는 낯선 문화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하는 협력을 통해서 의도하는 문화간 개방을 실현할수 있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측의 모두를 위한 좋은 협력이 서로에게 이득이 될수있음을 확신합니다.



## 베를린 돌봄필요 인구 상담기관 (Pflegestützpunkten)의 베트남 의뢰인들과의 상담경험

안드레아 뮐러 (Andrea Müller)

2016년 총 1400건의 Pflegestützpunkten 의 상담 중에서 2016년과 2017년 베트남 출신의 돌봄필요인과 상담한 건수는 약 20건 입니다.

- 상담은 항상 베트남 언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며,
- 베트남 언어로 상담이 제공되는 곳은 두곳이 있습니다.
  - ⇒ Pflegestützpunkt Marzahn- Hellersdorf  
Marzahner Promenade 49, 12679 Berlin  
(030)51 43 093
  - ⇒ Pflegestützpunkt Lichtenberg  
Einbecker Straße 85, 10315 Berlin  
(030/ 98 31 76 30)

- 베트남 의뢰인들과의 접촉은 Verband für Interkulturelle Arbeit Regionalverband Berlin/ Brandenburg (VIA Regional) e.V. 단체를 통한 베트남 이주민들의 정신건강 네트워크와 베트남 이주민 단체인 Reistrommel e.V. 단체와 Verein Humanität und Kultur- Sport e.V.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Vereinigung der Vietnamesen Berlin/ Brandenburg 단체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 통역사는 한달에 한번, 화요일마다 각 상담소에서 두시간동안 활동합니다.

### 상담주제:

베트남 의뢰인들의 상담 주제와 상담 동기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 의뢰인들은 사전 예방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전적으로 위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대부분 입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이주민 그룹들을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Einbecker Straße에 소재한 Pflegestützpunkt 상담소 소장 파렌호르스트 (Vahrenhorst)씨가 2년 전 부터 베를린 리히텐베르크 (Lichtenberg) 지역에서 베트남 이주민 그룹을 위한 “정신 건강” 그리고 “이주와 노후”라는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며 활동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컨택들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담의 예:

전이암을 앓고 있던 60세의 한 여성이 저희들의 상담소를 찾았을 때에는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일들은 오로지 그녀의 지인 또는 가족들과 명예직 봉사 호스피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 또한 받지 않고 있었으며, 요양을 맡고있는 지인 또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그 어떤 중요한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 요양 보조물품 및 기구도 갖추지 않고 있었고, 중증장애 증명서를 통해 생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이후, 그녀는 저희 상담소에서 그녀의 집을 방문이 있고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사망했고, 그 어떤 신청서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더이상 줄수가 없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소부족으로 중증장애를 가지게 되어 몸

저 누워 있던 여섯살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병원의 퇴원수속 매니지먼트 측을 통해서 이미 걸맞는 요양 등급과 중증장애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모든것이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취학의무의 나이가 되어 학교에서 자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통학을 위한 교통 서비스와 요양 전문인의 동반 서비스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청과 요양보험 측과의 연락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아이의 당시 건강상태로 학교를 정말 다닐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마친 아이의 가족은 그 이후 다시는 상담소를 찾지 않았고, 이후에 아이가 어떠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진바 또한 없습니다.

**요양보험의 혜택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들:**

- 신청서 제출
- 한국의 의료 공보험에서 최소 2년간 가입 (가족보험 포함)
- „신체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받는 (일상생활의) 지장, 또는 스스로 보완할수 없거나 극복할수 없는 요구사항들” (사회복지법 § 14 SGB XI 조항)
- 위의 사항들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요양보험 복지 혜택:**

요양등급에 따른 다양한 혜택 (등급1 부터 등급 5까지)

- 요양 1등급 부터: 요양 책임자 부담 감면 경비, 요양 시설 및 거주공간 맞춤 설비시 비용과 요양 보조물품 및 기구 비용, 거주지에서 상담요청 비용, 그리고 요양교육 코스 지원
- 요양 2등급 부터: 재정지원, 현물지원, 콤비지원, 단기 돌봄 비용, 요양책임자 휴가기간 돌봄 비용, 노인유치원 비용

**Pflegestützpunkte 상담소 서비스:**

- 가정에서 머물수 있기 위한 도움제공
- 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신청서 제출시 도움
- 노인과 돌봄에 걸맞는 거주공간 맞춤 상담
- 대안적 거주형태 관련 상담
- 치매 환자와 지인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법 상담
- 위임장, 사전 의료지시서, 그리고 돌봄 관련 상담
- 돌봄과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경우에 따라 필요한 도움기관 중재와 조정

**돌봄훈련 코스란?**

„이 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하는 사람을 집에서 간병하고, 돌보며 동행하는 지인 또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이다. 요양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훈련과 돌봄활동 안내를 통해서 능력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코스는 돌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 외에 돌봄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의 환경에서 여러 조언들, 그리고 안전 및 보조책들과 관련한 정보를 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내 돌봄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지지를 받는 훈련코스 참여자들은 각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 안내서가 제공된다. 또한, 병상에서의 실질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적은 힘으로 허리에 무리 없이 움직이고 옮길수 있는지 등을 습득하게 된다.” (참조: <https://www.keh-berlin.de/de/pflege-in-familien-foerdern-pfiff>)

이 요양교육 코스는 퀴니긴-엘리자베스-헤르쯔베르거 병원 (Königin- Elisabeth- Herzberge Krankenhaus)에서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그곳에서 일하는 요양 전문인을 통해 열리며, 베트남 언어로 열리는 코스는 2018년 3월부터 다시 제공됩니다.

## 사회참여:

# 무엇이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의 사회참여를 장려시킬수 있을까?

김민성 박사 (Dr. Min-Sung Kim, GePGeMi e.V.)



사회적 참여 (Gesellschaftliche Teilhabe) 란, 주민들이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여에 있어, 국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바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주해온 어르신들 또한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령인구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콘셉트에 있어 아시아 이주 어르신들의 욕구들이 절적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독일의 복지 서비스들에 아시아 이주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하기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가정해볼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자리에서는 소개되었던 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GePGeMi e.V.)의 연구 중간결과를 고려해, 어떠한 것들이 재독 아시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사회적 자원으로 접근인 사회참여가 수월해질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에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주 어르신들, 그리고 독일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여러 연령대의 아시아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들의 의견들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이주 노령인구가 그들의 적은 수치를 고려하고서라도 다른 이주민 그룹과 비교해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는 의견에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었습니다:

- 독일 기관들의 부족한 문화간 개방
- (이주민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우들
- 아시아 노령인구 스스로의 사회참여에 대한 두드러지지 않은 동기

워크숍에 자리한 일부 전문가들은 요사이 독일에 노령 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만, 아시아 어르신들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시아 어르신들 스스로가 더 많이 활동적으로 능동적여질수 있다면,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받아들인 사회가 준비해 놓은 시스템 구조들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이주민들로부터 그 구조가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아시아 이주민들은 우리가 독일에서 수십년간 잘 통합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그 당시의 “손님 노동자들” (Gastarbeiter\*innen)이 아직까지도 “손님들” (Gäste)로 보아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독일 사회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과 공평하지 못한 대우들의 경험들은 자리한 많은 아시아 어르신들이 공감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참여를 위한 본질적인 장애물 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의 자원들을 위한 접근을 더 쉽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더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일부 아시아 어르신들의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아시아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욕구들을 표현하는 일이 비교적 드물었던 것 또한 사회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면서, 이에 아시아 이주민들의 연령대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큰 관련을 보이지 않아왔던 것 또한 이유일수 있다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자리한 모든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앞으로 이번 학

술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가능성이 앞으로 아시아 이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보이면서, 이를 위해 서로간 만날수 있는 장소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그 밖에, 앞으로 아시아 이주민들의 연대의 형성과 독일 사회에 아시아 이주민들의 바램이나 요구사항들을 잘 알릴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아시아 이주민 그룹들간의 넓은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웃간의 도움에서 자원봉사로: 이주민 단체 (Community)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간의 비제도적인 도움이 어떻게 하면 전문적여질수 있을까?

노조미 슈펜너만 (Nozomi Spennemann, DeJaK-Tomonokai e.V.)

### 문화고려 돌봄을 위한 독일-일본 협회 (DeJaK)와 베를린시의 자원봉사 및 자조모임 지원 기관 KPE와의 협력

“Ehrenamtliches Engagement” (에렌암틀리체스 앙가주망) 또는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뷔르거샤프트리체스 앙가주망). 이러한 독일어 단어들은 이주민들에게 낯설다는 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주민 단체 내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적인 도움들과 이웃간의 도움들이 주고 받아집니다. 이러한 도움들은 그 낯선 독일어 단어들이 의미하는 자원봉사들로 이루어집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예를들어 문화고려 돌봄을 위한 독일-일본 협회 (이하, DeJaK 으로 표기) 안에서의 경우가 그렇고, 또한, 재독 일본인이 구성한 스포츠 단체 등 여러 자발적 단체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사적인 도움에서 일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치매를 앓는 이웃을 돌보며 도와주는 경우 등입니다. 환우 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집을 방문했지만, 어떻게 노쇠한 환우를 다루어야 할지 불안합니다. 친구 또는 이웃간의 도움에는 경계 또한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어떠한 사적인 도움이 주어져야 하는지, 또는 주어질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칠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 안에서 서로간의 도움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지,

한 단체로써 질문이 듭니다.

DeJaK의 베를린 그룹이 자원봉사자 (Ehrenamtlichen)를 교육시키고 안내해줄 인적 자원과 전문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은 베를린시의 자원봉사 및 자조모임 지원단체인 Kontaktstellen PflegeEngagement (이하, KPE 표기)와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PE는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 가족들의 일상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돌봄 및 간병과 관련한 모든 도움들의 자조적 형태를 찾는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2017년 6월 DeJaK 단체와 베를린 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2개 KPE 기관의 상부조직인 Kompetenzzentrum Pflegeunterstützung이 환우방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협력서에 서명하고, 이후 4명의 재독 일본 여성이 샬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슈테글리츠-젤렌도르프, 그리고 판코우에 위치한 KPE에 등록하였으며, 이중 3명이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본훈련에 참여하여 11월 말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 DeJaK 단체 관점에서의 첫 성과

전문 기관과의 협력은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첫 경험들과 함께 따르는 생각이었습니다. KPE와의 협력을 통해, 예를들면, 동행하던 재독 일본 어르신들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 더 많은 도움들을 줄수있는 가능



성이 열리는 등, 한 작은 단체인 우리들은 KPE의 전문적인 안내들로 여러 큰 짐을 덜어줄 수 있었고, 저희들이 동행하던 어르신들에게는 또한 자원봉사자 방문의 질을 보장받는 의미 또한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발생한 봉사 업무비용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봉사자들이 자비로 이를 채우는 경우가 잦았지만, 기관과의 협력 이후에는 절대로 평가절하할 수 없는, 무엇보다 명예직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할 수 있는 봉사업무비의 지불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봉사 환우 방문서비스 컨셉을 재독 일본 어르신들의 수요상황에 일대일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자원봉사 방문 서비스에서는 무엇보다 언어적 이해를 돕는 통역과 번역이 주를 이루었고, 독일의 공관서나 의사 방문을 함께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모국어가 가능한 동행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립에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재독 일본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의 형태와 형식에 있어 개개인마다 개별적 맞춤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특별한 요구사항들에 KPE는 지금까지 늘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열린 모습은 모든 그룹들과 개인들에게 KPE기관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토론을 위한 질문들

다음은 누가 어떠한 이웃간의 또는 개별간 사적인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토론에 자리한 참여자들이 알고있는 도움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 탕케 도이칠란트 (Danke Deutschland e.V.):** 베트남 보트피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세운 자조모임 조직입니다. 주말마다 베를린 프리데나우 (Friedenau)에 소재한 아동 및 청소년 센터 “브룩” (BURG)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여러 그룹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적십자 (DRK Landesverband Berlin) 건물 내에서 재독 베트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일 없이, 이 이주민 단체 내에서 많은 도움들이 주고 받아집니다.

**린투 파고다 (Linh Thuu Pagode):** 탕케 도이칠란트 단체는 베를린 슈판다우 (Spandau)에 소재한 베트남 불교사찰 “파고다”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파고다” 사찰에서는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서로 신뢰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뮤니티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재독 한인 파독 간호사:** 6-70년대 독일로 건너온 한인 파독 간호사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로 사적인 틀 안에서 긴밀하게 도움이 이루어 집니다. 직업적 능력들로 인해 독일 시스템을 잘 알고있는 그들은 서로간 스스로를 잘 돕고 있습니다.

**(사)해로 (HeRo e.V.):** 문화간 노인복지를 위한 해로는 자원봉사 단체로 재독 한국인을 도우며, 특히, 한인 치매환우들을 돌봅니다.

**(사)인도주의와 베트남 스포츠-문화를 위한 단체 (Hoi Thien Tu Tam):** 이 단체 또한 자원봉사 단체로 임종을 기다리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활동의 일부는 독일 인본주의 연합 (HVD)소속 문화간 호스피스 동반자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동반자:** 문화간 호스피스 서비스 „동반자“는 당시 한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전문적으로 동행하는 일을 독일 인본주의 연합 (HVD)에 위탁하였던 재독한인 자조모임 단체인 동행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동반자는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모국어로 자원봉사자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그룹들은 이미 전문적인 구조적 시스템을 편입하였거나, 또는 지금까지 외부의 전문적 시스템과 합병하는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그렇다면 스스로 어떠한 수요상황들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활동:** 어느날 갑자기 돌봄에만 의지하게 되기 전, 출신국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들을 할 수 있다. 여러 단체 내에서도 그룹 내에서 요가나 타이치 등의 스포츠 활동, 또는 야유회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에게 열려 함께 이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공통된 언어는 자원봉사자들의 방문 서비스나 동행에 있어서,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에 있어서 서로간의 사소통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근간중 하나이다. 문화간 이해를 목표로하는 기관들이 모든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울수 있다.

**현존하는 서비스간의 연결:**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일본 그룹들이 함께할수 있는 공동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들을 모아 한곳에 결집시켜 모두가 쉽게 정보를 받아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협력과 교환이 바람직하다.

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적극성 (Engagement)은, 그 행동과 마음이 우선적으로 친구간 우정이란 이름아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예직 자원봉사” (Ehrenamt)로 바라보아져,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노후기에서 보았던 전문적 돌봄의 손길은 그 가치가 더 크다

고 하겠습니다. 이에 토론에 자리한 참여자들은 앞으로 사회에서 명예직 봉사활동들에 더 많은 인정과 존중이 따를기를 바랬습니다.

KPE등 전문기관들과 협력하는 방법등이 아직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천천히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를린 판코우에 소재하고 있는 KPE기관의 지모네 코샤바 (Simone Koschwa)씨가 알려준바에 따르면, 그룹들이나 단체들이 그곳의 공간들을 그들만의 행사를 위해 사용할수 있고, 또한, 예를들어 구역센터 (Stadtteilzentrum Pankow)에서 매달 두번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만남의 시간 “Die schlaue Kaffeerunde“등, 언제나 판코우 KPE에 열려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들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문적 기관과 협력의 바탕이 될수있는 신뢰관계를 쌓는 좋은 기회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KPE기관은 베를린의 모든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소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flegeunterstuetzung-berlin.de/kontaktstellen/>

## “문화를 고려한 돌봄”: 무엇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크리스토프 람케 (Christof Rambke, 노인복지 문화간 개방 능력개발센터 Kom-Zen)

“문화를 고려한 돌봄”의 컨셉트에서 한 개인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욕구” (Bedürfnis)의 개념을 미리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문화를 고려한 돌봄”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질수 있습니다:

- 자기결정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한 방향설정,
- 다름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행동과 자세,
- 그리고 일상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욕구에 따른 맞춤형

“다름”에 대한 영역은 예를들어, 언어, 문화, 종교, 이주, 성별, 성적지향, 나이, 사회적 출신, 그리고 생활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를 고려한 돌봄은 “다름”의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한 개인의 일대기를 기준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문화를 고려한 행동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느낌에 대한 자기성찰,
- 다른 생각과 행동양식, 그리고 느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 특정한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 그리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인식하는 일 뿐만 아니라, 깊고 신중한 인지를 통해 모순되는 부분까지 깨닫는 일.

문화를 고려한 돌봄을 받기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둘째, 한 개인이나 그룹의 욕구와 기대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관찰에 의하면, 돌봄에 있어 아시아 그룹의 욕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론되어진바가 적고, 따라서 체계적인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의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아시아 커뮤니티의 욕구 표현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표현되어진 욕구들에서 돌봄 시스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문화를 고려한 돌봄에 있어 아시아 그룹의 욕구

문화를 고려한 돌봄에 있어 이야기 되어진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음식과 음료, 명절, 종교, 개인위생, 수침심, 신뢰감, 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리감의 정도, 특히, 모국어가 가능한 돌봄은 토론 참여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단지 더 나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미세한 얼굴표정 등을 통해 더 많은 신뢰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음료 또한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본질적으로 좋은 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간주되어진 가운데, 저녁식사로 계속 빵만 제공받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 (Wohlbefinden)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설날과 같은 친밀하고 익숙한 명절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은 존중과 인정을 표출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정신적인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음식과 음료, 춤과 놀이, 그리고 음악들은 중요한 아시아적 요소들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적 욕구에 대한 존중은 문화를 고려한 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익숙한 장례예식을 지킬 수 있는 일 또한 이에 속합니다.

개인위생, 그리고 수침심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를 고려한 돌봄에서 민감한 영역으로, 개인적 의사전달과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의사교환은 필수적입니다. 욕구는 표현되어야 하고, 동시에 유념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뢰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거리감의 정도나 병에 대한 이해들은 특히나 문화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일반적인 에티켓들이 너무 거리를 두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너무 외람된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기에, 친근하고 순수한 질문들과 함께 면밀하고 섬세한 배려심이 적절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아시아 의학과 이에 근반한 병에 대한 이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만큼, 아시아 문화권의 환우들을 위한 치료와 돌봄에 있어 좋은 자원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 베를린 돌봄 시스템에 대한 아시아 그룹의 요구

이번 연구자료의 지금까지 분석에서 보여주었듯이, 동아시아 출신의 재독 노령인구는 돌봄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무엇보다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도는 문화를 고려한 돌봄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문화를 고려한 주거공동체 또한 관심있는 거주형태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현존하는 지원 서비스들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일들은 베를린 돌봄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돌봄관련 상담과 지원 가능성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 주민 단체들에게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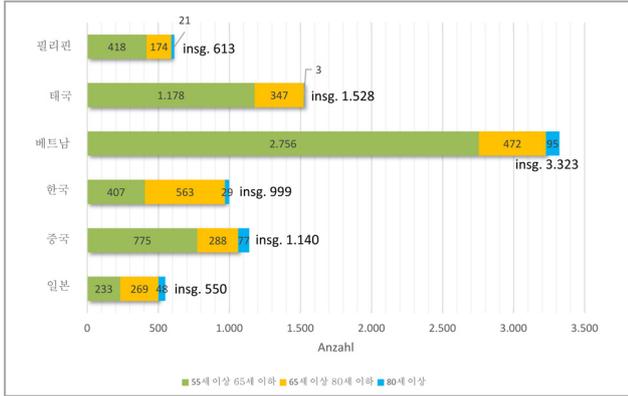
예를들어, 모국어가 가능한 돌봄과 관련해 동아시아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병 서비스 분야가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권 출신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동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시아 커뮤니티 자조모임의 큰 잠재력이 이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서비스들을 구축할 시에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들에서 문화가 고려되어지는 경우들이 드물게 관찰되는 이유로, 토론에 자리한 아시아 어르신들은 재독 아시아인만을 위한 요양시설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등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 아시아 어르신들의 예들 또한 현존합니다. 무엇보다, 아시아적 관점에서의 돌봄에 있어 욕구와 관련해 현존하는 기관들의 문화간 개방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기관을 이끄는 장들이 그 과정에서 본보기가 되어 움직이는 일은 무엇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들과의 네트워크를 쌓는 일들은 예를들어, 문화를 고려한 장례예식 등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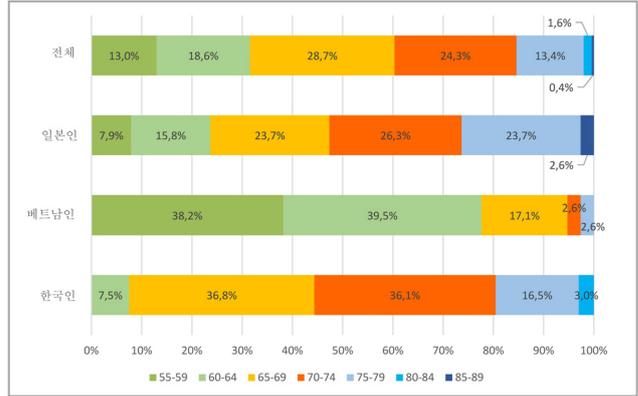
# 통계 자료

베를린 인구통계 자료와 아시아 이주 노령인구 설문조사 자료에서 발췌한 선발적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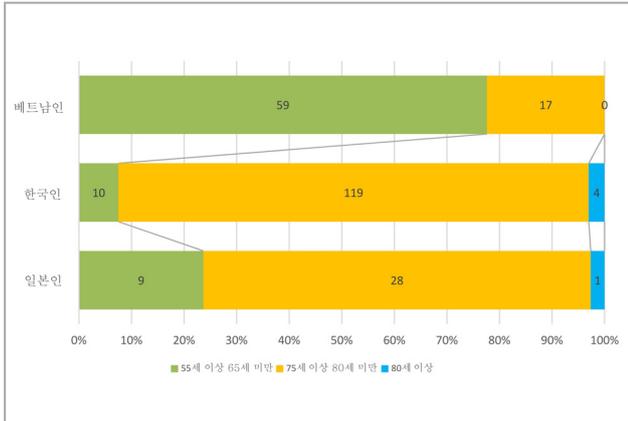
1. 2016년 베를린 거주 만 55세 이상 아시아 이주민 수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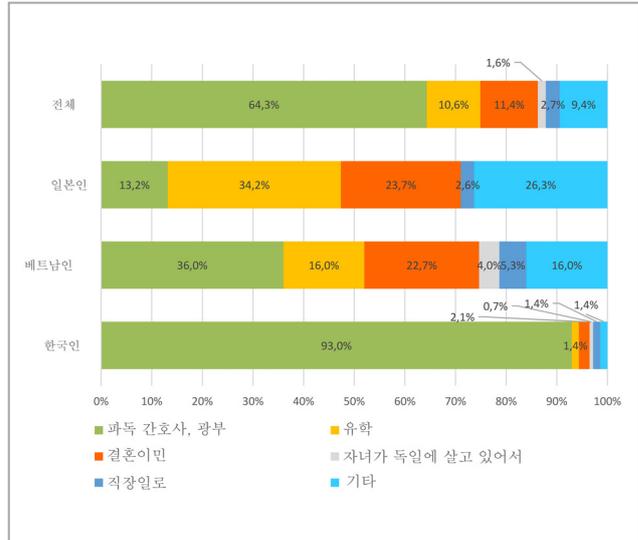
4. 만 55세 이상 설문 답변자의 구체적 연령그룹



2. 만 55세 이상 설문 답변자 연령그룹



5. 만 55세 이상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의 이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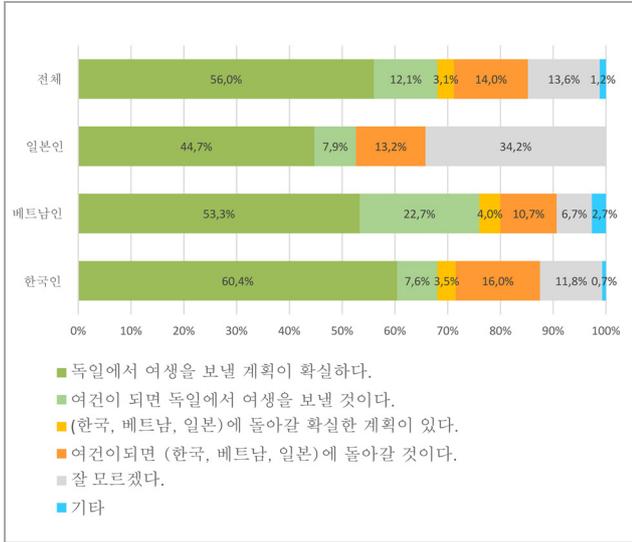


3. 만 55세 이상 설문 답변자의 구체적 연령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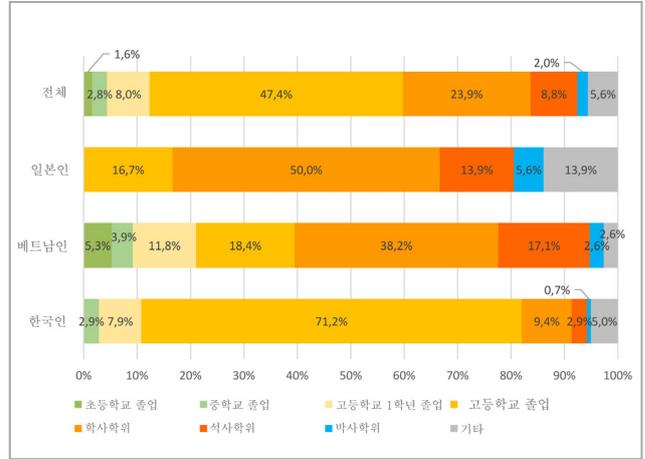
	Koreaner 한국인	Vietnameen 베트남인	Japaner 일본인	Gesamt 전체
55-59	0	29	3	32
60-64	10	30	6	46
65-69	49	13	9	71
70-74	48	2	10	60
75-79	22	2	9	33
80-84	4	0	0	4
85-89	0	0	1	1
Gesamt	133	76	38	247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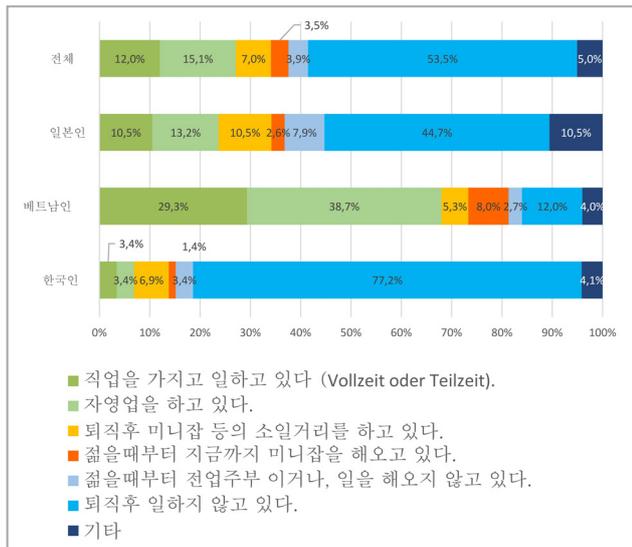
6. 만 55세 이상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의 고국으로의 재 이민 바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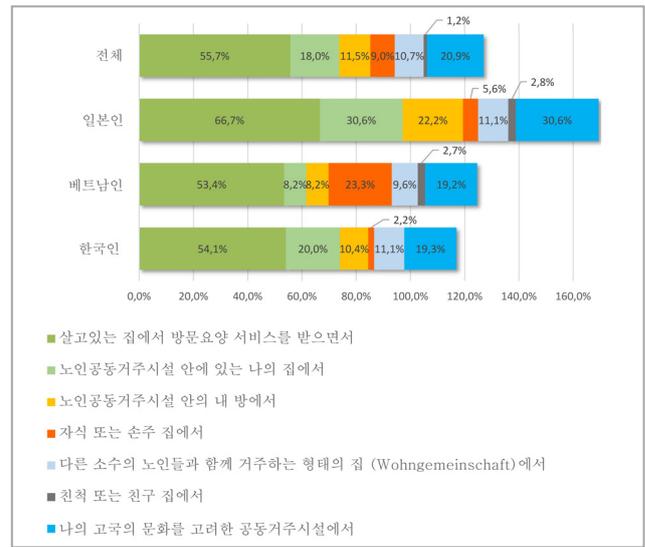
9. 만 55세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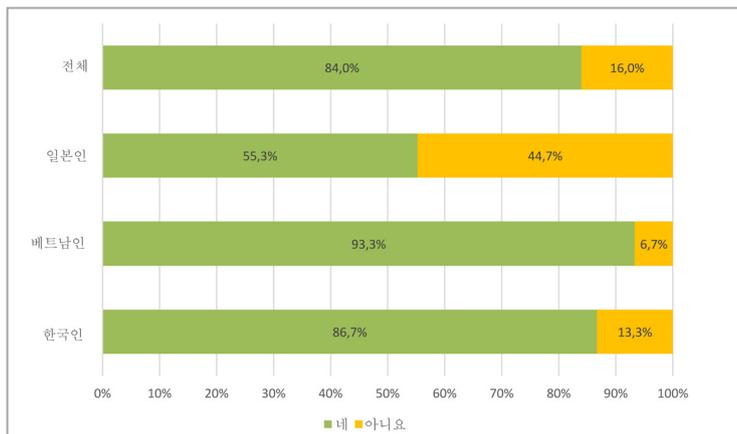
7. 만 55세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의 현 직업활동 상황



10. 만 55세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이 돌봄 필요시 원하는 거주형태 (복수선택 답변)



8. 만 55세 이상 설문답변 아시아 이주민 자녀여부 (자녀가 있으십니까?)



# 학술회 프로그램 순서

„친애하는 (아시아) 어르신들, 오늘 어떻게 지내시나요?“

2017년 12월 1일 샬롯덴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Charlottenburg-Wilmersdorf) 구청 의회실 (BWV-Saal)



10:00	등록
10:30	후원자 인사말 레온 프리델 (Leon Friedel, 샬롯덴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 이주사회통합담당자)  1부: „고마워요, 오늘 ... 지내고 있어요!“
10:45	베를린 (동)아시아 노령인구 건강관련 삶의 질과 노후에 대한 인식 연구 중간결과 김민성 박사 (Dr. Min-Sung Kim), (사)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GePGeMi e.V.
11:15	활동적 노후: 독일-일본 협회 (DeJaK-Tomonokai e.V.)의 활동 노조미 슈펜너만 (Nozomi Spennemann), 문화고려 돌봄을 위한 독일-일본협회(Verein für deutsch-japanische kultursensible Pflege DeJaK-Tomonokai e.V.)
11:35	베를린 돌봄 및 간병필요 인구 상담기관 (Pflegestützpunkten)의 베트남 의뢰인들과의 상담경험 안드레아 뮐러 (Andrea Müller), Pflegestützpunkt Lichtenberg
11:55	점심 휴식
13:00	퍼포머스 공연: „그리움의 시간“ - 한국 파독 간호사들의 이야기 - 극단 “빨간구두”  2부: 이주의 삶에서 노후에 건강 및 참여증진을 위한 기회와 도전
13:30	그룹 토론회 I. 사회참여: 무엇이 아시아 이주노령 인구의 사회참여를 장려시킬수 있을까? -진행: 김민성 박사 (Dr. Min-Sung Kim), GePGeMi e.V.-  II. 이웃간의 도움에서 자원봉사: 이주민 단체 (Community)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간의 비제도적인 도움이 어떻게 하면 전문적여질수 있을까? -진행: 노조미 슈펜너만 (Nozomi Spennemann), DeJaK e.V.-  III. “문화를 고려한 돌봄”: 무엇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행: 크리스토프 람케 (Christof Rambke), 노인복지 문화간개방 능력개발센터 (Kom•Zen-Kompetenz Zentrum Interkulturelle Öffnung der Altenhilfe)-
14:30	커피타임
15:00	그룹토론회 결과 발표
15:30	단체사진과 함께 행사 마무리
사회자	아스콜트 히즐러 (Askold Hitzler), GePGeMi e.V.

(사)이민사회정신건강증진협회 (GePGeMi e.V.) 개최 학술회 협력 단체:

Danke Deutschland e.V.

Dejak-Tomonokai e.V.

Japanische Fraueninitiative Berlin

Theatergruppe von koreanischen ehemaligen Krankenschwestern „Rote Schuhe“

Vereinigung der Vietnamesen in Berlin & Brandenburg e.V.

